

## 임가영 개인전에 부쳐

### 글. 이정형 작가

예술가의 노동은 특별한 것인가? 예술과 노동에 관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에 따라 작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업을 통해 보여준다. 처음 임가영 작가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반적인 전시노동이 전시장 안에서 일어나면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꽤나 흔한 방식의 예술과 노동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생계를 위해 하는 또는 페인트 공이 제공하는 노동력이 전시장에서 예술로서 인식될 수 있을까의 문제 일 것이다.

하지만 작가의 작업에는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상인 '아버지'가 페인트공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 특수성은 단순하게 이 페인트 행위가 갤러리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상황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다. 딸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쉽지 않은 노동의 수급관계 때문에, 작가는 아버지의 공적이면서도 사적인 노동을 갤러리 안으로 가지고 오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작가는 본인이 관심있어 하는 보편적인 노동과 예술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 위에 본인이 전시장 벽면을 칠해줄 노동의 제공 대상으로 선택한 아버지로부터 노동력을 제공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들을 올려 놓는다.

십 수년간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신 아버지의 노동 과정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직접 의사결정의 과정을, 딸의 전시장을 칠해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실행할 수밖에 없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동안 둘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사 결정 충돌상황들을 경험한다. 이러한 충돌은 아버지가 경험한 일반적인 노동환경에서 오는 습관들이 만들어 낸 사고방식과 딸이 경험한 예술이라는 틀 안에서의 관습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하나의 공간 안에 예술과 노동이라는 주제로 혼재 될 수 있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처음에 익숙한 관점에서만 사고하려 했던 나 자신의 경직된 사고의 과정들이, 작가가 만들어 놓은 개인전이라는 상황적 큰 틀 안에서 작업적 단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게 됨으로써, 전시가 완성된 시점에서 모든 것이 아귀가 맞아 떨어져서 돌아가는, 조화를 경험한 것은 이번 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었다. 고생한 임가영 작가 그리고 아버지에게 박수를 보낸다.